

미 매체들, 류현진 FA 몸값 예측 분분

올해 내셔널리그 유력한 사이영상 후보로 활약 중인 류현진(32·LA 다저스). 최근 2경기에서 주춤했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최저 평균자책점(2.00)을 유지하며 사이영상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류현진의 FA 몸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

지난 28일 'OSEN'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 담당 기자들이 전날 사이영상 모의투표를 실시한 결과 류현진은 37명의 기자 중 22명으로부터 내셔널리그 1위표를 받았다. 그럼에도 류현진의 FA 몸값을 두고는 여전히 예측이 엇갈린다.

지난 9일 'CBS스포츠'는 류현진을 FA 랭킹 5위에 올려놓으며 2년간 4000만 달러 수준의 단기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어깨 수술 경력, 내년 만 33세가 되는 나이 때문에 장기계약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또다른 스포츠 매체인 '더 스포어'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익스팬드 더 존'도 최근 류현진의 FA

몸값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2년 4,000~5,000만 달러와 4~5년 1억 달러의 상반된 예측을 내놓았다. 총액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날 만큼 의견이 달랐다.

이 매체에서 단기 계약(2년 5,000만 달러)을 예상한 이는 역시 류현진의 오랜 부상 경력과 내년 33세의 나이를 근거로 삼았다. 반대로 "1억 달러 계약도 가능하다"고 예측한 이는 부상 우려가 있던 클레이튼 커쇼가 지난해 시즌 후 3년 9,300만 달러에 재계약한 것처럼 류현진도 충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저스는 지난 2014년 10월 앤드류 프리드먼 야구부문사장 체제가 시작된 이후 1억 달러 이상 대형 계약을 맺지 않았다. 고액 연봉 및 장기 계약을 피하며 외부 대형 FA 영입에도 소극적이었다. 커쇼에 앞서 켈리 잰슨의 5년 8,000만 달러, 저스틴 터너의 4년 6,400만 달러가 프리드먼 체제 투타 최고액 FA 계약이었다.

남은 시즌 류현진의 성적에 따라 계약 규모도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캡카 등 PGA 올해의 선수 후보 선정

임성재, 신인왕 후보 포함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8~2019시즌 올해의 선수 후보에 브룩스 캡카, 맷 쿠처, 잔더 쇼플리(이상 미국),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4명이 선정됐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PGA 투어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18~2019시즌 올해의 선수와 신인왕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올해의 선수와 신인왕은 모두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정해지며 이번 시즌 15개 대회 이상 출전한 회원들이 투표 자격을 갖는다. 투표는 9월 6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결과를 추려 수상자를 발표한다.

신인왕 후보로는 임성재(21)와 캐머런 챔프, 애덤 롱, 콜린 모리카와, 매슈 울프(이상 미국)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신인 가운데 페덱스컵 포인트가 가장 높아 유일하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나간 것이 장점이다. 다만 후보 5명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이 없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임성재가 신인상을 받으면 1990년 제정된 PGA 투어 신인상 사상 최초의 아시아 국제 수상자가 된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상금왕에 오른 캡카의 2년 연속 수상이 유력하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우승과 평균 타수 1위를 앞세운 매길로이가 추격하는 모양새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자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캡카는 미국프로골프협회(PGA of America)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

미국프로골프협회는 지난 27일 올해의 선수로 캡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승수와 평균 타수, 상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가 받는다. 이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와는 다른 상이다.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정한다. 다만 1992년부터 미국프로골프협회와 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자는 해마다 일치했다. 캡카는 올해 3승을 거둬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나란히 최다승을 기록했다.

손흥민, AIPSASIA 선정 '올해의 남자선수'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아시아체육기자연맹(AIPSASIA) 초대 올해의 아시아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지난 29일 "손흥민이 AIPSASIA 총회에서 올해의 아시아 선수 남자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IPSASIA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총회에서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 및 팀을 선정해 발표했다. 손흥민은 남자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됐다.

손흥민은 2018~2019시즌 48경기에서 20골 1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를 창단 이후 137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으로 이끈 선봉장

이었다. 독일 스포츠마케팅 매체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손흥민의 몸값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7번째로 높은 8,000만 유로(약 8,900만 달러)로 평가됐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한편 올해의 선수 여자 부문에서는 인도 최초 여성 복서로 올림픽 동메달,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등을 목에 건 복싱 영웅 매리 콤(36)이 수상했다. 올해의 팀으로는 최근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카타르 남자 축구대표팀(2019년)과 일본 여자 축구대표팀(2018년)이 뽑혔다.

AIPS ASIA는 1978년 설립된 아시아 스포츠기자들이 모인 권익단체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카타르 등 30개국이 소속돼 있다.

부엌 & 화장실 Remodeling 전문 회사

각종 최신 캐비닛, Stone Counter Top 취급합니다

얼바인,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신용/정직/좋은 가격 & 실력있는 회사 !!

CA Lic #:1051205

Pine Tree Construction 주정부 면허회사
필립 안에게 전화 주세요 **714.345.8768** 36 Discovery #100
Irvine, CA 92820